

## [ 러시아·유라시아 비즈니스 정보 ]

# 타지키스탄 항공시장 동향

타지키스탄 항공 시장은 중앙아시아 내에서 작은 편이다. 국영기업인 타지크항공(Tajik Air)과 민간기업인 소몬에어(Somon Air), 이스트에어(East Air) 등 총 3개 항공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타지키스탄 3대 항공사 개요

소몬에어는 6대의 보잉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다. 타지크항공은 서류 상 33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9대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24대의 항공기(TU-134, Yak-40)는 장기간 보관하고 있다. 현재 운항되고 있는 타지크항공의 항공기들은 TU-154M 한 대, AN-28 두 대, AN-26 한 대, MA-60 한 대, Mi-8MTV 헬리콥터 세 대이다. 이스트에어는 보잉 737 두 대와 에어버스 A320 두 대를 운항하고 있다. 이 세 항공사는 2012년에 84만 7,020명의 승객을 수송했으며, 이들 중 78%는 타지키스탄과 러시아를 오가는 사람들이었다.

소몬에어는 터키 Turkish Airlines, 아랍에미리트 Etihad Airways, 아프가니스탄 Safi Airways, 사우디아라비아 Nas Air와 다자간 인터라인 협정(MITA)을 맺고 있다. 소몬에어의 시장 점유율은 창립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28%를 기록했다. 현재 24개 노선으로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다. 국가항공인 타지크항공은 항공시장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몬에어에 계속해서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다. 타지크항공은 라트비아 AirBaltic과 코드쉐어 협약을 체결하고 19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이스트에어는 2007년에 설립되어 현재 10개의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 타지키스탄 항공시장 현황 및 전망

타지키스탄 교통부 소속 항공국(Civil Aviation Department)은 아직까지 내부적인 관리문제의 해결과 모범사례 구축 시행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동 기관은 자국 항공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한편, 타지키스탄에 기반을 둔 항공사 중 누구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회원이 아니며, 소문에는 IATA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타지키스탄은 수도인 두산베(Dushanbe)를 비롯해 후잔트(Khujand), 쿨롭(Kulob), 쿠르곤텡파(Qurghonteppa) 등 4개 주요 도시에 보잉 737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는 공항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에트 시대에 지어진 일부 작은 공항들이 있지만, 1991년부터 운영되지 않고 있다. 모든 공항에는 하나의 활주로가 있다. 두산베 국제공항은 여객기와 화물기를 모두 운영할 수 있다.

항공 시장은 정치적으로 정부와 연결된 타지키스탄 사업가들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효과적인 마케팅, 판매, 유통을 위해서는 잘 연결된 현지 파트너가 필수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빈약한 지상교통 인프라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국내외 항로 개설을 우선시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에 본사를 둔 3개 주요 항공사뿐만 아니라, 19개 외국 항공사는 2014년부터 타지키스탄으로 운항을 시작했으며 현재 총 22개 항공사가 타지키스탄에서 운영되고 있다. 주요 외국 항공사로는 러시아 State Transport Company Rossiya(GTK Russia), Siberia Airlines (aka S7), Orenburg Airlines, Ural Airlines, Tatarstan Airlines, UTair Aviation, Taimyr Air Company, Yakutia Airlines, Airline Donavia, Vim Avia Airlines, 키르기스스탄 Avia Traffic Company, 카자흐스탄 Air Astana, 터키 Turkish Airlines, 아프가니스탄 Kam Air, 중국 China Southern Airlines, 이란 Osmon Air, 아랍에미리트 Air Arabia, UAE FlyDubai, 우크라이나 Ukraine International Airlines가 있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제한된 자원으로 국제 항공교통 표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항을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 두산베 국제공항 연장 프로젝트는 활주로와 에이프런을 보강하고 크고 현대적인 항공기를 다룰 수 있는 터미널 빌딩을 업그레이드하는데 3,7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잡았다.

타지키스탄의 항공 인프라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또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시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발달이 미약하다. 3개의 주요 항공사와 4개의 주요 공항이 있지만 항공장비의 전체 범위에 대한 수요는 있는 편이다. 항공시장은 항공기 부품, 소프트웨어, 항공연료(러시아의 GazProm이 독점하고 있음), 지상 지원장비, 전자 및 운항장비에 대한 수요가 있다. 2008년 이래 연간 항공 산업 서비스, 장비 및 비행기 예비 부품에 대한 수요는 재고 수명주기에 따라 400만~1,000만 달러 정도로 다양하다.

자료정리: EMERiCs, 자료감수: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출처

U.S. Department of Commerce, 타지키스탄 항공산업, 2016..4.17.

<https://www.export.gov/article?id=Tajikistan-Aviation>